

# 트럼프 휴전종료앞 이란에 핵포기 최대 압박

### 美·이란, 해상봉쇄·호르무즈 공격 놓고 “휴전협정 위반” 휴전 연장 가능성도 관측...美유엔대사 “트럼프가 결정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를 이틀 앞둔 19일(현지시간) 이란을 향 해 재차 ‘최후통첩’성 메시지를 날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

2주 간의 휴전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7일 이란을 향해 “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하겠다”고 했던 메시지를 반복한 것 으로, 이란과의 막판 협상에서 압박 수위 를 끌어올린 것이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팀이 오 는 2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에 있을 것이라고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지했다.

이번 협상은 휴전 종료 직전 사실상 마 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. 트럼프 대 통령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“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” 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 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”며 “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다. 순식간 에, 손쉽게 무너질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해 마이크 울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ABC 방송에서 “군사적 이중용도로 사용 돼 온 인프라에 대한 공격·파괴는 전쟁법 죄가 아니다”고 엄포했다.

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이스라엘과 레 비논의 휴전 발효,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를 통해 종전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했다.

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중 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기로 했고, 이란은 그것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 봉쇄를 재개했다. 이 곳을 지나려면 인도 선박들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고 회항했다.

이처럼 양측이 상대방을 향해 ‘휴전 협 정 위반’이라면서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, 미국이 이란 인프라 공격을 강행한다면 8 주 차를 맞은 전쟁은 확전으로 치달을 가 능성이 있다.

이란도 미국에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맞불 공격을 할 수 있고,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활 용해 홍해의 입구이자 또 하나의 국제 해 상 수송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결국 세계의 이목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·이란의 2차 협상 에 다시 쏠리게 됐다. 여기서 극적 돌파구 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.

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핵물질 반출이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다.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등을 논

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

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 램을 영구 중단하고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 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, 이란은 핵물질 반출을 없다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난 상황이다.

울츠 대사는 “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고 립대 있다. 경제는 자유낙하 상태”라며 “이란은 협상 카드가 없고, (트럼프) 대 통령의 목표와 레드라인은 매우 명확하다” 고 이란의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.

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라바프 이란의 회 의장은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방송된 연 설에서 “협상에서 진전은 있었지만, 여전 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”며 “우리는 최종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”고 말했다.

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미국의 역(逆)봉쇄(대이란 해상봉쇄)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“(중전) 협정에 서명할 때 해상봉쇄가 풀린다”고 했지만, 이란 측 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해제되지 않으면 호 르무즈 해협 개방도 없고, 미국과의 협상 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.

이란 군부와 강경파를 대변하는 타스남 뉴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“이란은 현재 (파키스탄에) 협상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”며 “(미국의) 해상봉쇄가 계속되 는 한 협상은 없을 것”이라고 보도했다.

미·이란이 종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풀 어야 할 난제들이 이처럼 얽혀있는 만큼, 양측이 하루 이틀 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는 휴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일 각의 관측도 나온다. 연합뉴스



미국에 나포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.

연남

## 불가리아 총선서 친러 세력 승리 유력

### 출구조사 ‘러 제재·우크라 지원 반대’ 전 대통령 우세

19일(현지시간) 실시된 불가리아 총선 에서 친러시아 성향 정당인 승리가 유력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dpa통신에 따르면 서로 다른 3건의 출 구조사 결과 루멘 라데프 전 대통령이 이 끄는 진보불가리아당(PB)이 39%에 가 까운 표를 얻어 약 16%의 득표에 그친 중 도우파 성향의 유럽발전시민당(GERB)

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.

다만, PB 역시 단독 정부 구성에 필요 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집권을 위해 서는 연정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. 그러나, 불가리아의 분열된 정치 지형 을 고려하면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dpa는 전망했다. 불가리아 정치권은 집권 다수당이 없어

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이 어려운 구조다. 이번 선거가 5년간 8번째 총선일 만큼 정 국 불안이 일상화했다.

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라데프 전 대 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온 친러시아 인사로 평가된 다.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최근 물가상 승의 원인으로 ‘유로화 도입’을 지목하며 반(反) 유럽연합(EU) 정서에 호소하 기 도 했다. 이번 총선은 작년 12월 당시 로 센 젤라스코프 총리가 예산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자진 사퇴하면서 본격화했다. 연합뉴스

각종 필터&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 
(주)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.

# (주)호원테크

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(주)호원테크는  
설비기획, 시공,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 
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,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.








■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

■ ☎ 062)940-8221 · FAX 0629-945-8415 / HP 010-3646-8311